

“사회주의의 힘, 그 도저한 인류애적 보편”

‘불꽃의 여자’ 로자 룩셈부르크와의 대화

임지현

한양대 교수 · 역사학



“너는 민족문제를 너무 기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 내가 언어나 문화적 측면에서 각 민족의 고유성을 부정한 건 아니야. 그렇다고 독립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할 수는 없잖아. 사회주의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그 도저한 인류애적 보편주의야.”

로자 룩셈부르크

“지금 집에 없어요”라는 주인 할머니의 쌀 쌀한 대답이 베를린 겨울 아침의 찬 공기를 가르며 귀에 꽂혔다. 나는 크라나흐가 (Cranachstrasse) 58번지에 있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아파트를 찾아간 참이었다.

절친한 친구였던 클라라 체트킨의 아들 콘스탄틴 체트킨과의 모성애적이며 지배적이었던 사랑이 시작된 곳 바르샤바의 모코토프 감옥을 탈출하여 이곳으로 찾아온 요기헤스에게 조용히 문을 가리키며 사랑이 끝났음을 냉정하게 선언한 곳. “나의 공기, 나의 산소, 나의 존재이유 그리고 내 유일한 기쁨”이라며 끊임 없이 기대고 또 지배하고자 했던 코스티아로자가 불렀던 콘스탄틴의 애칭이 그녀를 떠나간 곳 사랑의 추억과 배신, 열정적인 일과 논쟁, 독일 사회민주당 연수원에서 정치경제학을 강의하면서 《자본축적론》의 구상을 가다듬은 곳. 일과 사랑의 좌절 속에서 40개계를 넘긴 생의 긴 그림자를 끌며 쉬던 곳 혁명가로서의 치열함이 아니라 실내 곳곳에 묻어 있을 여성 로자의 섬세함을 느끼고 싶었던 내 희망은 물거품이 된 셈이다.

어디서 로자를 찾을 것인가? 막막한 심정으로 서 있는데, 문득 전전 일본의 좌파 작가 미야모토 유리코가 로자 룩셈부르크를 회상한 글이 생각났다. 아침에 만났을 때, 로자는 이미

보드카를 마신 듯했다는 ... 나는 크라나흐가의 아파트에서 사민당 연수원으로 가는 길목의 술집들을 뒤지기로 했다. 판단이 틀리지 않아서 곧 바의 침침한 한구석에서 한잔 들이키는 그녀를 발견했다. 피투성이의 포복으로 삶과 역사를 치열하게 끌어온 혁명가의 처절함 보다는 피로와 우수에 젖은 중년의 이지적 옆얼굴, 로자는 그렇게 내게 다가왔다. 불문곡직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보드카를 한잔 주문하고 자신을 소개했다.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거부

로자 — ‘선생님’이니 ‘씨’니 하는 소리는 빠지. 그 호칭의 격식에 담긴 위계질서를 중요해. 지현은 나를 잘 알잖아. 그러지 않아도 사민당 영감쟁이들의 가부장적 위선과 남성국수주의에는 신물이 날 지경이야.

지현 — 미안해. 그렇게 나오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나도 모르게 경칭이 튀어나오고 말았어. 내가 살아온 사회의 결이 늘 그래왔으니까. 나는 아직도 그 사회의 태도를 끌어버릴 수 없는 것이지, 이럴 때마다 반성하곤 하지만 늘 이 모양이야.

로자 — 나는 정말 카우츠키니 베른슈타인이나 그 영감들만 보면 벽에 부딪치는 느낌이야. 그들이 거인이어서가 아니라, 그 질석할 듯한

독일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야. 나는 그들이 독일 여성을 가두어놓았던 전통적인 3K의식 (Kinder - 아이들, Kirche - 교회, Kuche - 부엌)에서 얼마나 멀리 서 있는지는 정말 자신이 없어.

지현 — 글썽, 그게 꼭 그들만의 문제일까? 네 사랑 요기헤스도 그런 마찬가지잖아. 티쉬카(레온 요기네스의 애칭)도 아기를 갖고 싶다는 너의 간절한 소망을 잔인한 침묵으로 늘 짓밟지 않았나. 게다가 사사건건 너의 일거수 일투족에 간섭하는 꼴이라니. 난 네가 코스티아를 휘두르면서 마치 엄마처럼 사랑을 쏟는 것도, 끊임없이 내게 명령하고 너를 지배하고자 했던 티쉬카의 남성국수주의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로자 — 내가 뭘 안다고 그래. 티쉬카는 달라. 그리고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사생활에 대해 알가알부하니? 폴란드에서 온 유대 계집애라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사민당 영감쟁이들하고 너도 똑 같구나. 난 그만 일어나겠어.

지현 — 잠깐만. 그건 오해야. 우리 민족도 억압받는 민족이랑.

로자 — 하지만 네가 일까? 나는 독일에게 억압받는 폴란드인이고, 그중에서도 또 유대인이야. 게다가 여자구. (일어서면서) 자, 봐. 이렇게 다리도 절어. 내 두 어깨를 짓누르다 못해 심장까지 뒤틀어버리는 이 4종의 억압을 너는 죽어도 이해 못해. 내가 이 고통들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이를 앙다물고 버텼는지 알아? 너는 죽어도 몰라. 이상하군. 내가 왜 생전 처음보는 네게 이런 이야기들을 털어놓는지. 이젠 나도 약해진 것인가 ... 폴란드가 그리워.

지현 — 폴란드가 그렇다구? 독일 사회민주당은 유럽 최대의 사회주의 정당이고 너는 그 무대의 프리마돈나잖아. 게다가 ‘마르크스주의의 황제’ 카우츠키조차도 네 앞에서는 절절 매잖아. 폴란드라고 뭐 다르겠어. 오히려 못하면 더 못하지.

로자 — 그게 아니야. 사민당의 영감들에 대해선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겠어. 사민당의 기층노동자들도 문제야. 그들 대부분은 지도부에 그저 복종할 뿐이야. 너는 왜 노동자들을 희생자라고만 생각하고 그들이 공범자라는 생각을 못하니? 당은 이미 관료화된 지 오래고, 그저 화석화된 공룡들이라는 느낌만 들어. 독일이라

면 지긋지긋해. 세(勢)는 독일과 비교할 바가 안되지만 오히려 폴란드의 운동에서는 치고 나오는 힘이 느껴져.

인류애적 보편주의로서의 사회주의

지현 — 하지만, 너는 ‘폴란드 사회당’의 독립 슬로건에는 줄곧 반대해왔잖아. 폴란드의 독립을 부정하면서 또 그 당에 대한 너의 뜨거운 애정은 도대체 뭐야. 모순 아니니?

로자 — 너는 민족문제를 너무 기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어. 내가 언어나 문화적 측면에서 각 민족의 고유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할 수는 없잖아. 사회주의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그 도저한 인류애적 보편주의야. 마르크스의 인간관을 봐. 그가 본 것은 한국인도, 유대인도, 독일인도, 폴란드인도 아닌 ‘유적(類的) 인간’ 이잖아.

지현 — 나도 그 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야. 현실 사회주의의 실질적인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그 저급한 민족주의를 생각하면 나도 절로 욕지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더욱 기 유고 ... 아니야. 너는 차라리 모르고 있는 게 낫겠어. 어쨌거나 원론적으로는 네가 백번 옳다고 나도 믿어. 하지만 현실은 현실 아니겠어.

로자 — 유고? 유고가 어쨌단 말이니?

지현 — 아니야, 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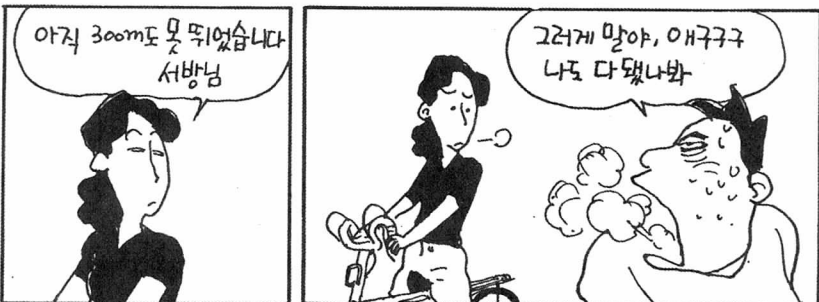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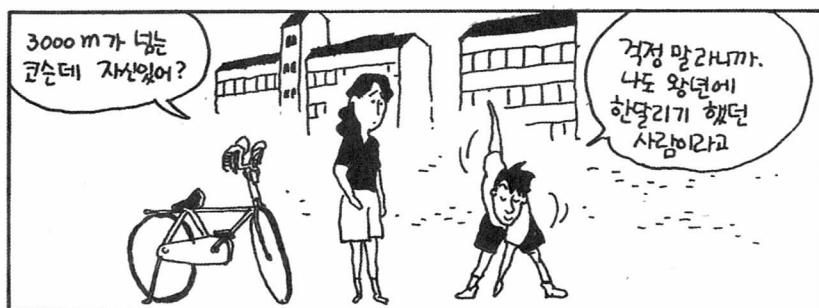
로자 — 나도 쫓이는 데가 있기는 해. 너도 기억하지? 내가 레닌을 ‘타타르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판했던 거. 그런 문화풍토에서 어떻게 계몽사상의 적자인 사회주의가 전개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레닌에게서 불행의 씨를 보았고 그래서 분명히 경고하기도 했어.

지현 — 물론 레닌의 중앙집중적 당 조직원칙에 대한 너의 비판에 나도 전적으로 동감이야. 중앙위원회가 혁명을 지도한다는 발상은 나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위대한 지도자’나 ‘당 중앙’들이라면 끔찍해. 그치들은 공(功)은 자신들이 독점하고 과(過)는 모두 민중에게 돌리는 끝없는 탐욕의 불가사리들이야. 더구나 신영웅사관으로 무장한 채 그들에게 애절한 사모곡을 띄우는 당 역사가들이란 ...

로자 — 내가 이미 얘기했지. 대중의 창발성을 무시한 채 전위가 혁명을 주도하는 블랑키즘이 가진 위험을. 그건 블랑키즘의 당연한 귀

책과 이미지

박시보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로베스피에르가 생각나. 더할 나위 없이 숭고하지만 리얼리즘이 결여되었기에 순진한. 이상주의가 때로 결과에서는 최악이 될 수도 있지. 아니 비극이라고나 할까. 네가 고등학교 졸업사진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며”라고 사인했을 때, 이미 너의 비극은 시작됐는지 모르지.”



임지현 교수.

결이야.

지현 — 잘 난 척하지 말아.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폴란드 왕국 및 리투아니아 사회민주당 내의 네 반대파들도 네가 레닌에 대해서 퍼부었던 것과 똑같은 비판을 네게 퍼부었어. 이걸 정말 아이러니가 아니냐?

순결한 이상주의자

로자 — 너, 혁명활동을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니? 더욱이 러시아 점령 지역 폴란드 왕국처럼 사회운동이 불법화된 조건에서. 너는 것처럼 열악한 조건에서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전사들의 처지를 몰라도 너무 몰라. 매 순간마다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는 내게 이론적 정적에 대한 관용을 바라다면 그건 사치야. 네가 알 리가 없지.

지현 —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나도 인정해. 하지만 그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해서 정당성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다면 논리의 비약이지. 어쨌든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로베스피에르가 생각나.

로자 — 트로츠키가 레닌의 중앙집중적 당조직을 비판하면서 ‘막시밀리언 레닌’이라고 비꼰 적이 있지. 그런 로베스피에르를 어떻게 너 나와 비교할 수가 있지?

지현 — 내가 로베스피에르를 떠올린 것은

그런 맥락에서가 아니야. 그 순결한 이상주의 때문이지. 더할 나위 없이 숭고하지만 리얼리즘이 결여되었기에 순진한... 나는 이상주의가 동기에서는 고결할지 모르지만, 결과에서는 최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비극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까? 지나친 순결성은 뭐랄까, 파시스트적인 것과 맥이 닿아 있어. 네가 고등학교 졸업사진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며”라고 사인했을 때, 그때 이미 너의 비극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지.

로자 — 이 형편없는 부르주아 속물.

지현 —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그것이 결국 너의 때 이른 죽음을 불러왔잖아. 너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 왜 일단 피해서 훗날을 도모하지 않았지? 네 마지막 실존적 결단을 지배한 것은 서구의 계몽사상보다는 폴란드의 낭만주의였던 것이 아닐까?

로자 — 헛소리 그만 하고 술이나 더 마셔. 난 강의하러 가야겠어. ♦